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안 홍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관리습관과  
모발 화장품의 사용 실태

-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최 진 선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관리습관과  
모발 화장품의 사용 실태

-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

안 홍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 전공

최 진 선

## 인 준 서

최진선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의 두피·모발 상태에 따른 생활습관과 모발화장품 구입특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발의 올바른 관리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킴과 동시에 문제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두피 및 모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그룹을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과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가진단 평점에 따라 상위, 중간,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세 그룹은 각각 33%에 해당하는 그룹 당 153~15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25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25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통인 그룹과 불량한 그룹에서는 31-35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둘째,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타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상이 가장 많았고, 양호한 그룹에서도 정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불량한 그

룹에서는 두피타입이 정상타입두피보다 지성, 민감성, 복합성이 많아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헤어스타일의 경우 염색모발이 가장 많았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웨이브 파머가 두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자연모발은 불량한 그룹에서 가장 많아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모발의 길이를 보면 모발의 길이가 중간이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많았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모발의 길이가 아주 짧다는 응답이 보통이거나 불량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모발의 길이가 길다는 응답이 많아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셋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현황에서 미용실 및 이용원의 월 이용비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만원~3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도 1만원 ~ 3만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불량한 그룹은 7만원 이상과 1만원 미만이 많았다( $p<.05$ ).

넷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 사용특성에서 사용하는 샴푸제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샴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도 일반샴푸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샴푸나 린스 겸용이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샴푸 후 물 행굼 정도의 경우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보통인 그룹에서는 양호그룹보다 적게 그렇다 응답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보였다( $p<.05$ ).

다섯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특성에서 린스사용 방법을 보면 모발 중간에서 모발 끝까지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과 불량한 그룹이 두피와 모발을 전체 사용한다는 응답에서 차이를 보였다( $p<.05$ ).

여섯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특성에서 사용방법을 보면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두피와 모발 전체에 바른 후, 바로 헹굼이 가장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바로 헹군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p<.05$ ).

일곱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에서 구입 시 고려사항을 보면 상대적으로 광고가 높게 나왔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그룹인 경우 두피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001$ ).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집단에서는 모발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과 양호한 그룹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이 보통, 불량한 그룹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p<.01$ ).

모발 화장품 구입 시 향과 색감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두피 및 모발 상태가 불량한 그룹이 양호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p<.05$ ).

여덟째,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제품 사용횟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샴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린스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횟수와 헤어로션을 사용하는 횟수에서 두피 및 모발상태의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p < .05$ ).

결론적으로 두피 및 모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모발화장품의 사용방법과 모발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의 유의성이 검증되어 이들이 젊은 여성의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젊은 여성들에게 두피 및 모발의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습관과 관리법을 제공하여 두피 모발 관리의 발전방향과 효과적으로 두피 모발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젊은 여성의 두피 및 모발 특성	6
2. 두피 및 모발의 건강	7
1) 두피 손상원인	7
2) 모발 손상원인	8
3) 두피 및 모발 유형에 따른 관리방법	11
3. 모발 화장품의 최근 시장현황	13
III. 연구방법	15
1. 연구 대상자	15
2. 연구 도구	15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	18
IV. 연구결과 .....	19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	19
2.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 자가진단 .....	23
3.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 특성 .....	27
4.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 .....	29
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방문여부 .....	29
2)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현황.....	30
5.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 사용특성 .....	33
6.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건조방법 .....	36
7.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 드라이기 사용.....	37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	37
2)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특성.....	38
8.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	40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여부.....	40
2)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특성 .....	41
9.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	42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여부 .....	42
2)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특성.....	43
10.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구입.....	45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 .....	45
2)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	49
1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사용횟수 .....	51
V. 고찰.....	53
VI. 결론 및 제언 .....	56
1) 요약 및 결론 .....	56
2) 연구의 제언 및 한계점 .....	6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 표 1 > 설문지 구성 .....	15
< 표 2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21
< 표 3 >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 자가진단 .....	25
< 표 4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 특성 .....	28
< 표 5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실 방문 여부 .....	29
< 표 6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현황 .....	31
< 표 7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 사용특성.....	34
< 표 8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건조방법 .....	36
< 표 9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	37
< 표 10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특성 .....	39
< 표 11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여부 .....	36
< 표 12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특성 .....	37
< 표 13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여부 .....	38
< 표 14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특성 .....	40
< 표 15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 ...	43

< 표 16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 .....	45
< 표 17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사용횟수 .....	47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문명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과,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려는 인간의 본능이다. 대중매체의 발달은 미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아름다운 외모로(이방실, 2009), 인간의 외모는 개인의 개성과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이상미, 2008). 이에 사람들은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계속되는 노력 및 시간과 돈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이방실, 2009). 그 중에 하나가 헤어스타일과 머릿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표현의 기본소재가 되는 건강한 두피와 모발의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원경 외, 2002).

모발은 ‘제 2의 얼굴’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곳이며(박연아, 2011),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모발이 자라는 만큼 두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두피와 모발로는 아름다운 헤어스타일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모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임이화, 2005). 과거에는 모발의 건강한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헤어스타일은 지나친 미의 완성적 개념으로 발전되면서(이방실, 2009) 잦아진 컬러링, 펌, 스타일링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등에 의해 모발은 손상 되고 있으며(이원경, 1999), 그밖에도 스트레스, 수면부족, 물리적 자극, 환경적 원인, 자외선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모발의 갈라짐, 염증 등 여러 가지 모발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기 때문에 모발미용은 헤어디자인에 의한 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모발관리의 건강적 측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곽형심, 1997).

모발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 평상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피와 모발의 깨끗한 세정과 유, 수분을 적당량 공급하며,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다(문영란, 2004).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은 모발을 매끄럽고 탄력 있게 하며,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어 부드럽고 축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동백, 아주까리, 수유의 열매로 머릿기름을 제조하여 모발을 손질하며(이원경, 1999), 단오날이면 청포물에 머리를 감았고, [규합총서]와 [동의보감]등에서도 모발건강을 위한 전통 처방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이연복 외, 2000).

두피관리는 모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여 외부의 영양공급과 내부의 원활한 피지분비로 탄력 있고, 윤기 있는 모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근주위는 물론 모발의 근원이 되는 모낭관리를 통해 건강한 두피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화장품신문, 2005).

두피와 모발에 관한 선행논문을 보면 정의성(2007)은 두피 및 모발관리의

필요성과 인식에 관한 조사에 관한 논문을 통해 두피 및 모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로는 미용실이 적합하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경란(2008)은 강원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두피와 모발에 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전문적인 시술 등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전문지식을 더욱 더 인식시키고 홍보해야한다고 보고하였다.

헤어제품에 관한 선행논문을 보면 이상미(2008)는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따른 제품구매와 사용방법에 관한 논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피 및 모발에 따른 샴푸를 사용하거나 올바르게 샴푸를 하는 사람은 미약하다고 보고하였고, 임이화(2005)는 모발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과 사용실태에 관한 논문에서 모발화장품의 구입과 사용실태는 미용을 전공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 연관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관련지식과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박연아(2011)는 두피·모발특성 및 헤어제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본 연구가 두피 및 모발 특성과 헤어제품 사용실태에 관한 구매행동, 만족도,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 자료이기에 실증적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판단했다.

이와 같이 두피 및 모발에 관한 연구와 모발화장품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두피 및 모발 상태에 관련하여 평소 모발관리 습관과 모발화장품 사용 등의 비교 연구는 뚜렷하게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두피 및 모발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평상시 두피 및 모발관리습관 및 모발화장품 사

용여부를 통해 두피 및 모발상태의 양호함과 불량한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평소 잘못된 관리습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에 따른 해결법을 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의 두피 및 모발의 상태와 모발화장품을 사용한 평상시의 두피 및 모발관리 및 미용실의 이용 등을 바탕으로 두피 및 모발의 건강함을 비교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두피 및 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습관과 관리법을 제공하여 두피 및 모발관리의 발전방향과 효과적으로 두피 및 모발을 관리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두피 및 모발의 특성을 바탕으로 두피 및 모발 관리습관과 모발제품 사용습관에 대해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과 불량한 그룹을 비교하여, 올바른 두피·모발 샴푸관리습관과 알맞은 모발제품의 사용을 알아보며, 두피·모발 건강을 유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두피 및 모발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조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본다.
2.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방법 차이를 비교한다.
3.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건조 및 헤어드라이기 사용특성을 비교한다.
4.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사용특성을 비교한다.
5.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을 비교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젊은 여성의 두피 및 모발특성

여성의 경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경우 대부분의 인체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두피의 피지분비량이 지성의 상태를 띄지만, 일부에서는 잦은 폼과, 식생활,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하여 두피의 상태가 건성화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대 피지분비상태는 남성호르몬이 과도한 분비 및 신진대사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20대 인구의 58% 중 약 25%에서 지성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문영심, 2010).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20대 중 후반의 경우 20대 탈모 및 두피관리가 평생의 모발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평소 탈모 및 두피관리가 20대 초·중반부터 필요하며,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제 선택과 균형 잡힌 식생활, 과도한 음주와 흡연 및 약물복용은 자제한다고 보고하였다(문영심, 2010).

30대는 인체 노화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스트레스 노출이 많아 인체 노화현상과 맞물려 체내 신진대사의 밸런스까지 깨어지게 된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에는 탈모단계가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산후 탈모 등과 맞물리기 쉽다. 또한 20대에 비해 건성화가 많은 상태로 피지분비 조절과 두피상태에 따른 보습 관리를 필요로 하며, 예민성두피가

되기 쉽기 때문에 평소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조성일 외, 2006). 30대의 머리카락은 외부적인 환경요인과 미용실술 및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피지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인 두피 건성화가 되어 모발이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하며 윤기가 없고 모발손상이 온다(안홍석 외, 2007).

## 2. 두피 및 모발의 건강

### (1) 두피의 손상원인

가장문제가 되는 부분은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소화기관의 이상과 식생활, 스트레스로부터 나타나는 두피 손상을 들 수 있다(전정애, 2008). 생리적인 원인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모공주위와 두피를 오염시켜 두피의 호흡을 방해하고 모공주위를 막아 외부의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고 신생모의 성장을 방해하며, 세균의 번식을 도와 염증과 홍반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문영란, 2004). 대부분 내적원인보다는 외적원인이 더 크며(전정애, 2008), 잘못된 샴푸법으로도 두피의 이물질과 피지분비물, 노화각질 등이 두피에 잔류하여 세균의 번식을 도와주거나, 퍼머넌트 웨이브와 컬러링 같은 화학적 요인과 플라스틱 재질의 브러시에 의한 과도한 빗질은 두피를 자극하여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고, 비듬과 가려움을 동반하며, 모발이 가늘고 탄력을 잃은 저질 모발을 생성하기도 한다(문영란, 2004).

## (2) 모발의 손상원인

### ① 생리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

호르몬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안드로젠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분비를 촉진해 모공이 막혀 모발 성장에 장애가 된다(전정애, 2008). 임신후기에는 보통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모발 탈락이 줄어들으나, 출산 후에는 탈모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경구피임약이나 갑상선 기능저하도 탈모의 원인이 된다(문영심, 2010).

자외선과 적외선이 모발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특히 화학선이라 부르는 자외선은 살균효과도 있지만 모발의 케라틴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며, 공장의 연소가스와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의해서 화학적 손상을 입거나(이원경, 2001), 대륙에서 넘어오는 황사현상, 산성비, 대기오염 등에 의해 모표피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이상미, 2008).

스트레스는 모발과 두피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며(김민정 외, 2005), 두피의 근육을 긴장, 수축하게 하여 모유두에 혈액과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전정애, 2008) 이밖에 모발의 성장과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를 약화, 억제시켜(Healing hair care insitute, 2002) 모발의 성장이 저하되면 탈모로 진행될 수 있다(김민정 외, 2005).

과도한 약물을 복용하면 소화기계통의 장애를 가져와 근본적인 영양흡수

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이어트나 단식 등의 영양결핍은 모발에 공급되는 종류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단백질과 피부를 강하게 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결핍을 가져와 모발의 성장을 저해한다(Healing hair care insitute, 2002).

## ②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

모표피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으나,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행하는 샴푸, 브러싱 등에 의해 혹은 모발끼리의 마찰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며(김경순 외, 2002) 한 브러싱도 모발에 큰 마찰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오강수, 2006) 딱딱한 브러시는 모발 표면에 기계적 마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강하게 할수록 손상은 심해진다.

열에 의한 손상은 블로우 드라이, 아이론 등에 의한 손상을 말하며, 모발은 열에 약해도 피부보다는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점은 120℃이다(이상미, 2008). 열기구 중에 가장 뜨거운 열을 사용하는 아이론 기구는 열 조정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시술의 미숙함으로 인해 모발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Healing hair care insitute, 2002). 모발은 보통 10~15%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가열하면 이들의 수분이 증발 건조되어 감촉이 악화된다(오강수, 2006).

불량한 가위로 커트를 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시술자로 인하여 모표피를 깎아 버리면 손상된 부분의 모피질의 수분이 증발하거나 약제 침투가 쉬워진다(류은주, 2002).

이 밖에 고무줄과 머리핀 등에 의한 잡아당김이나 모발에 볼륨을 주기 위해 시술되는 백코밍 등의 경우에도 모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곽형심 외, 2000).

### ③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

모발의 화학적 손상은 펌, 염색, 탈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모발에 맞지 않는 불량 약제를 사용했거나, 1제와 2제의 처리시간, 온도, 방법, 용량 등으로 인해 모발손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문영란, 2004). 모발의 가장 바깥 부분인 모표피 층을 팽윤 시키기위해 필요한 퍼머넌트 웨이브제나 염모제에 주로 사용되는 알칼리제 중 모노에탄올아민은 휘발성이 없어 모발 및 두피의 잔류하게 되어 손상시킬 수 있고, 모발에 오랫동안 알칼리제가 잔류하거나(김민정 외, 2005), pH가 9이상의 높은 알칼리제가 함유된 것을 사용 시 모발 팽윤도를 높여 손상을 일으킨다(오강수, 2006). 또한 고무줄을 두피에 너무 밀착하거나 텐션을 너무 주었을 경우에도 손상이 올 수 있다(오강수, 2006).

염·탈색제의 산화제로 과산화수소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과산화수소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면서 알칼리제에 의한 모발의 결합력을 약화시켜(문영란, 2004), 멜라닌 색소의 산화 탈색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오강수, 2006) 단기간 동안 동일한 모발에 염·탈색을 반복 하다보면 모발의 세로결합까지 절단될 수 있다(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 2004).

### (3) 두피 및 모발 유형에 따른 관리방법

두피와 모발은 서로 관련이 깊은 관계이며 건강한 두피는 건강한 모발성장에 기여한다(김현, 1998). 건강한 두피는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와 땀이 적당량 섞여 약산성의 피지막을 만들어 수분의 건조를 막고 촉촉한 윤기가 나는 것이다. 두피관리란 모발의 생성이나 두피의 건강을 저해하는 약제, 이물질, 피지, 땀 등의 피부 분비물을 일상적으로 하는 샴푸나 두피 스케일링, 트리트먼트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면서 두피 및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모발의 성장까지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관리를 뜻한다.

정상두피는 올바른 샴푸와 과도한 미용시술을 자제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곽형심 외, 2002), 샴푸는 두피 상태에 따라서 1~3일 중 1회 샴푸하는 것이 좋다(이상미, 2008).

건성두피는 강한샴푸, 유분이 많은 헤어제품, 강한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헤어로션 등은 피하는 것이 좋고(대한미용교수협의회, 2007), 두피의 수분과 유분,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사지를 해주며, 찬바람을 이용하여 머리를 말려준다. 염색이나 펴를 하기 전에는 두피 보호 제품을 사용해주고(이상미, 2008), 피지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습성이 함유된 약산성샴푸를 사용하며(임은진 외, 2011), 두피를 무리하게 세정하지 않는다(이상미, 2008). 또한 모발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드라이를 할 때는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한 후 시술하는 것이 좋다(오강수, 2006).

지성두피는 피지 응고물을 제거하고, 모공을 열어 청결을 유지하며 가능

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한다.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피지 분비를 피하고 샴푸 후에는 깨끗하게 헹구어 두피세정과 피지 조절에 초점을 맞춘다(진정애, 2008).

예민성두피는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두피를 민감하게 만드는 내·외적 환경요인들을 제거해 주며, 두피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식물성 저자극성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임은진 외, 2011). 스팀타월이나 사우나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폼이나 염색을 할 때도 두피 보호제를 도포 후 시술하여 두피에 자극이 덜 가도록 하고(진정애, 2008) 특히, 모발이 가늘고 탄력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 리듬이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저자극성 샴푸를 사용한다(오강수, 2006).

복합성두피는 지성두피와 건조한 모발에 맞게 샴푸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피에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해준다(진정애, 2008).

비듬성 두피는 청결함이 제일 중요함으로 두피의 살균·소독에 맞추어 관리하고 두피의 정상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샴푸사용을 하며, 영양의 균형도 중요하다(임은진 외, 2011). 샴푸는 비듬 전용 샴푸 같은 두피의 정상기능 회복제품을 사용하여 꼼꼼하게 샴푸를 하고 깨끗이 헹구어 준다(이상미, 2008).

탈모성 두피는 어깨와 두피 마사지를 하여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서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면서(김민정 외, 2005) 모발 재생을 위한 특수 관리를 병행한다.

### 3. 모발화장품 최근 시장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화장품 시장규모는 6조 5,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8.9%로 성장하였다. 화장품 생산액은 6조 3,856억 원으로 전년보다 6.2% 성장하였으나, 다만 3년간('08~'10년) 생산실적은 늘었으나 성장률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섬유 유연제, 세탁세제 등의 생활용품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샴푸, 린스 등 모발화장품 제품은 판매금액과 판매량이 동반 성장하며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파이낸셜 뉴스, 2013), 화장품 유형별 제품 류 생산실적에서 모발화장품류는 기초화장용 제품 류, 기능성 화장품류 다음으로 높았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10년 모발 화장품의 전체 생산액은 9,267억 원으로 전년대비 19.1% 성장하였고, 샴푸/린스 7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헤어 컨디셔너가 차지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모발화장품의 품목이 다양하여 그 품목에 따른 자료를 다 찾아 분석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모발 화장품의 대표적 품목인 샴푸의 최근시장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전체 샴푸 시장의 규모는 40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업별로 알아보면, LG 생활건강이 25.6%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아모레 퍼시픽이 25.5%로 바짝 뒤쫓고 있다(아시아경제, 2011). 한편 프리미

업 샴푸 중 아모레 퍼시픽의 브랜드 ‘려’는 모발화장품 브랜드들 가운데 최초로 2010년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위는 땡기머리로 한방 샴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이진희, 2013). 또한 샴푸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칸타 월드 패널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샴푸시장의 대형할인점 구매액 비중이 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23.1% 늘어났고, 온라인 구매량도 36.6% 급성장했다. 온라인 구매자들은 주로 개인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는 샴푸를 개인의 모발상태 및 헤어스타일에 최적화된 샴푸를 구매하며, 화장품처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시아 경제, 2013)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젊은 여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배포하여 20일만에 걸쳐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48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기재되어 있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19부를 제외하고 20대여성 314명, 30대여성 147명 총 461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영심(2010), 이방실(2009), 이상미(2007), 김정애(2008), 임이화(2005) 선행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 조사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도록 재구성 하였으며, 설문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특성 4문항, 생활습관 5문항, 두피모발상태 28문항, 두피·모발 관련

습관 26문항 등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표 1>과 같다. 두피 및 모발상태 자가진단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 표 1 > 설문지 구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연령, 신장, 몸무게, 결혼여부, 직업	4
생활습관	흡연습관, 음주습관, 수면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 여부	5
두피 및 모발상태	두피타입, 모발형태, 모발길이, 헤어스타일	4
	자가진단	14
두피 및 모발 관련습관	미용실 방문여부, 미용실 방문 횟수, 미용실 시술 종류, 미용실 사용 비용	4
	샴푸사용 제품 종류, 샴푸사용 시기, 샴푸사용 횟수, 샴푸사용 시 물의 온도, 샴푸방법, 샴푸 후 물 행균, 샴푸사용 시 두피·모발 상태 고려 여부, 모발건조 방법, 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 헤어드라이기 사용횟수, 헤어 드라이기 사용시간, 린스 사용횟수, 린스사용방법, 트리트먼트 사용여부, 트리트먼트 사용횟수, 트리트먼트 사용방법	17
	모발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 모발화장품 구매장소, 모발화장품 구매횟수, 모발화장품 구매비용, 모발화장품 사용횟수	5
총 문항		53

###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진단 평점에 따라 상위, 중간 그리고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그룹은 각각 33%에 해당하는 그룹 당 153~1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위 ⅓를 양호그룹, ⅓를 보통그룹, 하위 ⅓그룹을 불량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두피 및 모발 상태별 그룹 간 헤어관리 생활습관과 헤어제품의 구매사용방법 실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관리 생활습관과 헤어제품의 구매사용방법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결 과

### 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에 25세 이하가 43.6%로 가장 많았고, 26-30세 24.5%, 31-35세 21.3%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25세 이하가 5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발 상태가 불량, 보통인 경우에는 31-35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1$ ). 이러한 결과는 25세 이하가 두피 및 모발상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전문직이 31.7%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22.3%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사무직/전문직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호한 경우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 상태별은 미혼이 64.2%, 기혼이 33.2%이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흡연유무를 보면 흡연을 하는 경우는 20.8%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음주의 경우에는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 2주일 2-3회가 20.8%, 1주일 1회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의 경우에 6-7시간이 33.4%, 5-6시간이 31.2%, 7-8시간이 24.5%로 나타났으며, 수면시간별에 따라서는 수면을 많이 취하는 경우에 두

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여부별로 살펴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42.5%, 주1회 정도가 30.2%, 주3-4회 정도가 19.5% 순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받는 경우(자주 있다와 매일 있다)가 27.1%, 12.4%로 나타나 30%정도로 나타났지만, 운동여부별, 스트레스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2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연령	25세 이하	82	53.6	49	31.8	70	45.5	201	43.6	28.248** * (.000)
	26-30세	33	21.6	48	31.2	32	20.8	113	24.5	
	31-35세	17	11.1	41	26.6	40	26.0	98	21.3	
	36세 이상	21	13.7	16	10.4	12	7.8	49	10.6	
직업	학생	49	32.0	26	16.9	28	18.2	103	22.3	17.895 (.057)
	주부	18	11.8	34	22.1	26	16.9	78	16.9	
	사무직/전문직	44	28.8	50	32.5	52	33.8	146	31.7	
	판매직	7	4.6	8	5.2	7	4.5	22	4.8	
	생산/기술직	4	2.6	5	3.2	5	3.2	14	3.0	
	기타	31	20.3	31	20.1	36	23.4	98	21.3	
결혼상태	미혼	109	71.2	86	55.8	101	65.6	296	64.2	9.178 (.057)
	기혼	41	26.8	63	40.9	49	31.8	153	33.2	
	기타	3	2.0	5	3.2	4	2.6	12	2.6	
흡연	예	34	22.2	25	16.2	37	24.0	96	20.8	3.162 (.06)
	아니요	119	77.8	129	83.8	117	76.0	365	79.2	
음주	1주일 1회	25	16.3	22	14.3	24	15.6	71	15.4	11.025 (.527)
	1주일 2-3회	34	22.2	36	23.4	26	16.9	96	20.8	
	2주일 1회	10	6.5	10	6.5	22	14.3	42	9.1	
	3주일 1회	7	4.6	6	3.9	6	3.9	19	4.1	
	4주일 1회	15	9.8	17	11.0	14	9.1	46	10.0	
	마시지 않는다	44	28.8	43	27.9	48	31.2	135	29.3	
	기타	18	11.8	20	13.0	14	9.1	52	11.3	
수면	5시간미만	11	7.2	11	7.1	7	4.5	29	6.3	5.902 (.658)
	5-6시간	39	25.5	51	33.1	54	35.1	144	31.2	
	6-7시간	52	34.0	50	32.5	52	33.8	154	33.4	

간	7-8시간	44	28.8	36	23.4	33	21.4	113	24.5	
	8시간 이상	7	4.6	6	3.9	8	5.2	21	4.6	
운동	운동을 안 한다	62	40.5	61	39.6	73	47.4	196	42.5	7.223 (.513)
	주 1회 정도	46	30.1	50	32.5	43	27.9	139	30.2	
	주 3-4회 정도	32	20.9	27	17.5	31	20.1	90	19.5	
	주 5-6회 정도	8	5.2	8	5.2	2	1.3	18	3.9	
	매일	5	3.3	8	5.2	5	3.2	18	3.9	
스트레스	거의 없다	6	3.9	4	2.6	6	3.9	16	3.5	6.001 (.647)
	가끔 있다	46	30.1	33	21.4	31	20.1	110	23.9	
	보통이다	48	31.4	52	33.8	53	34.4	153	33.2	
	자주 있다	37	24.2	45	29.2	43	27.9	125	27.1	
	매일 있다	16	10.5	20	13.0	21	13.6	57	12.4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p<.001

## 2.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 자가진단

두피 및 모발상태 자가진단을 변량 분석한 결과를 보면 두피 상처가 있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85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39점, 보통이 3.90점, 불량인 3.27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두피가 쉽게 자극을 느낀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36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01점, 보통이 3.37점, 불량인 2.69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두피 탈모가 심하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67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25점, 보통이 3.74점, 불량인 3.01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두피 가려움이 심하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57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11점, 보통이 3.66점, 불량인 2.93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두피 비듬이 많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85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28점, 보통이 3.88점, 불량인 3.39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두피에 홍반 및 염증이 있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4.03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58점, 보통이 4.06점, 불량인 3.44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두피에 피지가 많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69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12점, 보통이 3.69점, 불량인 2.25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모발에 탄력이 없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2.76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28점, 보통이 2.67점, 불량인 2.33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모발이 얇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2.91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54점, 보통이 2.80점, 불량이 2.40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1$ ). 모발 솔이 적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19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72점, 보통이 3.16점, 불량이 2.70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백모가 많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3.24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3.58점, 보통이 3.36점, 불량이 2.78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모발에 윤기가 없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2.93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33점, 보통이 2.95점, 불량이 2.52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모발이 손상되었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2.60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14점, 보통이 2.54점, 불량이 2.12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모발에 끊어짐이 있다는 문항에서 전체평균은 2.79점,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36점, 보통이 32.69점, 불량이 2.32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 표 3 >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 자가진단

	양호 (n=153)	보통 (n=154)	불량 (n=154)	합계	F(p)
두피 상처가 있다	4.39± <sup>1)</sup> .66	3.90± .61	3.27± .97	3.85± .89	82.511*** (.000)
두피가 쉽게 자극을 느낀다	4.01± .87	3.37± .81	2.69± .86	3.36± 1.002	94.347*** (.000)
두피 탈모가 심하다	4.25± .82	3.74± .75	3.01± 1.05	3.67± 1.02	77.807*** (.000)
두피 가려움이 심하다	4.11± .72	3.66± .71	2.93± .97	3.57± .94	82.442*** (.000)
두피 비듬이 많다	4.28± .71	3.88± .702	3.39± .82	3.85± .83	54.425*** (.000)
두피에 홍반 및 염증이 있다	4.58± .51	4.06± .695	3.44± .99	4.03± .89	87.898*** (.000)
두피에 피지가 많다	4.12± .797	3.69± .76	3.25± .88	3.69± .89	43.713*** (.000)
모발에 탄력이 없다	3.28± .91	2.67± .77	2.33± .83	2.76± .92	51.025*** (.000)
모발이 얇다	3.54± .93	2.80± 1.003	2.40± 1.06	2.91± 1.103	50.963*** (.000)
모발 숯이 적다	3.72± 1.003	3.16± .96	2.70± 1.10	3.19± 1.102	38.159*** (.000)

백모가 많다	3.58± 1.16	3.36± 1.04	2.78± 1.22	3.24± 1.19	20.053*** (.000)
모발에 윤기가 없다	3.33± .79	2.95± .78	2.52± .84	2.93± .87	38.890*** (.000)
모발이 손상되었다	3.14± .98	2.54± .81	2.12± .81	2.60± .96	53.292*** (.000)
모발에 끊어짐이 있다	3.36± .95	2.69± .86	2.32± .96	2.79± 1.02	49.650*** (.000)

\*\*\*p<.001

### 3.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 특성

1) 평균 ± 표준편차

두피타입을 보면 정상이 40.1%로 가장 많고, 복합성 18%, 긴성 15.4%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 정상이 51.6%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불량한 경우 지성, 민감성, 복합성이 각각 14.3%, 13.6%, 24.7%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모발의 형태는 곱슬인편이 49.7%로 많았고, 직모인편 24.5%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 직모가 2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불량한 경우 곱슬인편이 53.9%로 높게 나타났다.

모발의 길이는 중간 40.3%, 짧다 27.3%, 길다 21.9% 정도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아주 짧다가 1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불량한 경우 길다는 응답이 27.3%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헤어스타일을 보면 염색모발이 29.9%, 웨이브퍼머 28.9%, 자연모발 20.2%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웨이브 파마라는 응답이 32.7%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한 경우 자연모발이라는 응답이 3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 < 표 4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 특성

---

구분	두피 및 모발 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두피타입</b>									
정상	79	51.6	68	44.2	38	24.7	185	40.1	41.34*** (.000)
지성	11	7.2	17	11.0	22	14.3	50	10.8	
건성	24	15.7	28	18.2	19	12.3	71	15.4	
민감성	5	3.3	8	5.2	21	13.6	34	7.4	
비듬성	8	5.2	7	4.5	11	7.1	26	5.6	
복합성	23	15.0	22	14.3	38	24.7	83	18.0	
기타	3	2.0	4	2.6	5	3.2	12	2.6	
<b>모발의 형태</b>									
직모	32	20.9	14	9.1	27	17.5	73	15.8	14.856 (.062)
직모인편	33	21.6	49	31.8	31	20.1	113	24.5	
곱슬인편	69	45.1	77	50.0	83	53.9	229	49.7	
심한 곱슬	8	5.2	5	3.2	8	5.2	21	4.6	
기타	11	7.2	9	5.8	5	3.2	25	5.4	
<b>모발의 길이</b>									
아주 짧다	17	11.1	2	1.3	4	2.6	23	5.0	24.952** (.002)
짧다	42	27.5	44	28.6	40	26.0	126	27.3	
중간	52	34.0	72	46.8	62	40.3	186	40.3	
길다	30	19.6	29	18.8	42	27.3	101	21.9	
아주 길다	12	7.8	7	4.5	6	3.9	25	5.4	
<b>헤어스타일</b>									
웨이브 파마	50	32.7	46	29.9	37	24.0	133	28.9	27.604*** (.001)
스트레이트	18	11.8	26	16.9	26	16.9	70	15.2	
파마	54	35.3	53	34.4	31	20.1	138	29.9	
염색모발	26	17.0	20	13.0	47	30.5	93	20.2	
자연모발	5	3.3	9	5.8	13	8.4	27	5.9	
기타	5	3.3	9	5.8	13	8.4	27	5.9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p<.01 \*\*\*p<.001

#### 4.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

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방문여부

미용실 방문 여부를 살펴보면 방문을 한 경우가 92.1%로 나타났고,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 7.8%로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5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방문여부

구분	두피 및 모발 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미용실 방문여부</b>									.379
예	141	92.2	142	92.2	142	92.2	425	92.1	(.827)
아니오	12	7.8	12	7.8	12	7.8	36	7.8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2)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현황

미용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중 미용실 방문빈도를 보면 2-3달에 1회가 40.9%, 6개월에 1회가 27.8%, 한 달에 1회가 18.8%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 2-3달에 1회와 한 달에 1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술 종류별로는 커트 48.7%, 펌 24.5%, 염색 22.4% 순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커트가 52.5%로 높게는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1-3만원 미만이 36.5%,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이 25.6% , 1만원 미만이 17.2%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1-3만원 미만이 44.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량한 경우에는 7만원 이상과 1만원 미만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p<.05$ ).

---

< 표 6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현황

---

구분	두피 및 모발 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미용실 방문빈도</b>									
1년에 1회	8	5.7	4	2.8	15	10.6	27	6.4	17.67 (.126)
6개월에 1회	32	22.7	46	32.4	40	28.2	118	27.8	
2-3달에 1회	64	45.4	54	38.0	56	39.4	174	40.9	
한 달에 1회	29	20.6	26	18.3	25	17.6	80	18.8	
15일에 1회	3	2.1	3	2.1			6	1.4	
일주일에 1회	1	.7					1	.2	
기타	4	2.8	9	6.3	6	4.2	19	4.5	
<b>미용실 및 이용원</b>									
<b>시술종류</b>									
커트	74	52.5	68	47.9	65	45.8	207	48.7	12.63 (.125)
염색	24	17.0	38	26.8	33	23.2	95	22.4	
펌	32	22.7	35	24.6	37	26.1	104	24.5	
코팅 또는 헤어 매니큐어	7	5.0			4	2.8	11	2.6	
헤어트리트먼트	4	2.8	1	.7	3	2.1	8	1.9	
<b>미용실 및 이용원의</b>									
<b>월 이용비용</b>									
1만원 미만	26	18.4	16	11.3	31	21.8	73	17.2	17.10 * (.050)
1만 원 이상 - 3만원 미만	63	44.7	49	34.5	43	30.3	155	36.5	
3만 원 이상 - 5만원 미만	27	19.1	46	32.4	36	25.4	109	25.6	
5만 원 이상 - 7만원 미만	12	8.5	12	8.5	11	7.7	35	8.2	

7만 원 이상	8	5.7	15	10.6	14	9.9	37	8.7
기타	5	3.5	4	2.8	7	4.9	16	3.8
합계	141	100.0	142	100.0	142	100.0	425	100.0

\*p<.05

## 5.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샴푸 사용특성

샴푸제품을 보면 일반샴푸 62.3%, 샴푸, 린스 겸용 12.1%, 천연샴푸 11.3% 순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일반샴푸라고 응답한 경우가 76.5%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인 경우는 샴푸나 린스 겸용이라는 응답이 2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 $p<.001$ ).

샴푸 시기는 오전이 60.3%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침전이 16.3%, 아침과 저녁 각 한 번씩이 15.4%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아침과 저녁 각 한 번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 하계가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뜻 하계가 40.1% 순으로 나타났으나,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샴푸방법은 두피를 손가락 지문으로 문지른다는 응답이 69.2%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가 19.1%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는 응답이 22.2%로 높게 나타났다.

샴푸 후 행균 정도를 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의 경우에 82.5%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84.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인 경우에는 77%정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p<.05$ ).

#### < 표 7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샴푸 사용특성

---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샴푸제품</b>									
일반샴푸	117	76.5	87	56.5	83	53.9	287	62.3	
비누	12	7.8	14	9.1	9	5.8	35	7.6	
천연샴푸	10	6.5	23	14.9	19	12.3	52	11.3	33.51
비듬방지샴푸	4	2.6	5	3.2	7	4.5	16	3.5	***
샴푸, 린스결용	7	4.6	18	11.7	31	20.1	56	12.1	(.001)
탈모방지샴푸	3	2.0	6	3.9	4	2.6	13	2.8	
기타	4	2.6	6	3.9	3	1.9	13	2.8	
<b>샴푸시기</b>									
오전	92	60.1	92	59.7	94	61.0	278	60.3	
오후	6	3.9	10	6.5	9	5.8	25	5.4	3.22
취침 전	27	17.6	25	16.2	23	14.9	75	16.3	(.919)
아침과 저녁 각한번씩	26	17.0	22	14.3	23	14.9	71	15.4	
기타	2	1.3	5	3.2	5	3.2	12	2.6	
<b>샴푸횟수</b>									
하루1회	106	69.3	106	68.8	107	69.5	319	69.2	3.92
하루 2회 이상	28	18.3	26	16.9	27	17.5	81	17.6	(.687)
주 2-3회	12	7.8	11	7.1	16	10.4	39	8.5	
주 4-5회	7	4.6	11	7.1	4	2.6	22	4.8	
<b>물의 온도</b>									
차갑게	6	3.9	8	5.2	7	4.5	21	4.6	
미지근하게	78	51.0	88	57.1	73	47.4	239	51.8	8.05
따뜻하게	64	41.8	51	33.1	70	45.5	185	40.1	(.428)
뜨겁게	5	3.3	6	3.9	4	2.6	15	3.3	
매우 뜨겁게			1	.6			1	.2	

삼푸방법									
두피를 손톱으로 문지른다	10	6.5	9	5.8	12	7.8	31	6.7	
두피를 손가락 지문으로 문지른다	104	68.0	104	67.5	111	72.1	319	69.2	6.17 (.404)
두피는 문지르지 않고 모발을 문지른다	5	3.3	12	7.8	6	3.9	23	5.0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34	22.2	29	18.8	25	16.2	88	19.1	
삼푸 후 행급									
매우 그렇다	53	34.6	47	30.5	39	25.3	139	30.2	15.71
그렇다	77	50.3	72	46.8	92	59.7	241	52.3	*
보통이다	23	15.0	29	18.8	22	14.3	74	16.1	(.047)
그렇지 않다			4	2.6	1	.6	5	1.1	
전혀 그렇지 않다			2	1.3			2	.4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p<.05 \*\*\*p<.001

## 6.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건조방법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건조방법은 온풍 드라이 50.8%, 자연건조 25.4%, 냉풍 드라이 14.5% 순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온풍드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4.2%, 보통인 경우에 응답한 경우가 54.5%, 불량인 경우의 43.5%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 표 8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건조방법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건조방법</b>									
자연건조	40	26.1	36	23.4	41	26.6	117	25.4	13.037 (.366)
온풍 드라이	83	54.2	84	54.5	67	43.5	234	50.8	
냉풍 드라이	17	11.1	24	15.6	26	16.9	67	14.5	
선풍기	4	2.6	4	2.6	7	4.5	15	3.3	
타월	5	3.3	3	1.9	10	6.5	18	3.9	
건조하지 않고 잡자리에 든다	2	1.3	1	.6	3	1.9	6	1.3	
기타	2	1.3	2	1.3			4	.9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 7.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

1)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

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를 보면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80.9%, 사용 안 한다 19.1%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 상태가 불량인 경우에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1%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의 19.6%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9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헤어드라이기 사용여부</b>									
사용한다	123	80.4	131	85.1	119	77.3	373	80.9	2.212
사용 안한다	30	19.6	23	14.9	35	22.7	88	19.1	(.331)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2)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특성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경우, 헤어드라이기 사용 횟수는 매일 사용이라는 응답이 70%, 주 2-3회 사용이 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78.9%로 불량인 경우의 6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용 시간은 5-10분미만이 46.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5분미만이 38.9%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 10분-20분미만이 1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0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드라이기 사용특성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헤어드라이기 사용횟수</b>									
매일사용	97	78.9	85	64.9	79	66.4	261	70	9.530 (.146)
주 2-3회 사용	17	13.8	27	20.6	27	22.7	71	19.0	
주 4-5회 사용	5	4.1	14	10.7	8	6.7	27	7.2	
기타	4	3.3	5	3.8	5	4.2	14	3.8	
<b>헤어드라이기 사용시간</b>									
5분미만	44	35.8	55	42.0	46	38.7	145	38.9	4.325 (.827)
5분 - 10분미만	57	46.3	57	43.5	58	48.7	172	46.1	
10분 - 20분미만	20	16.3	16	12.2	13	10.9	49	13.1	
20분 - 30분 이상	2	1.6	2	1.5	2	1.7	6	1.6	
기타			1	.8			1	.3	
합계	123	100.0	131	100.0	119	100.0	373	100.0	

8.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

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여부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 여부를 보면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 86.5%로 나타났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3.4%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보통, 불량인 경우보다 양호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린스 사용횟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 표 11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여부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여부									3.684( .158)
예	129	84.3	139	90.3	131	85.1	399	86.5	
아니오	24	15.7	15	9.7	23	14.9	62	13.4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2)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특성

린스사용횟수를 보면 샴푸시마다 64.7%, 2-3일에 한번 16.3% 순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보통, 불량한 경우에 샴푸시마다 한다는 응답이 65% 정도로 양호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린스 사용 방법은 중간에서 모발 끝이 51.9%, 모발에만 전체가 31.1%, 두피 모발 전체가 17%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두피 모발 전체라는 응답이 25.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한 경우는 10.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 표 12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특성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린스사용횟수</b>									
샴푸 시 마다	80	62.0	91	65.5	87	66.4	258	64.7	4.329 (.632)
2-3일에 한번	18	14.0	27	19.4	20	15.3	65	16.3	
주 1회	16	12.4	11	7.9	11	8.4	38	9.5	
기타	15	11.6	10	7.2	13	9.9	38	9.5	
<b>린스사용방법</b>									
두피모발전체	33	25.6	21	15.1	14	10.7	68	17.0	11.795 * (.019)
중간에서 모발 끝	62	48.1	70	50.4	75	57.3	207	51.9	
모발에만 전체	34	26.4	48	34.5	42	32.1	124	31.1	
합계	129	100.0	139	100.0	131	100.0	399	100.0	

\* $p < .05$

## 9.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

### 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여부

트리트먼트 사용여부를 보면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0.5%로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29.5%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72.5%로 불량한 경우의 64.3%보다 높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 표 13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여부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트리트먼트 사용여부</b>									
예	111	72.5	115	74.7	99	64.3	325	70.5	3.68 (.158)
아니오	42	27.5	39	25.3	55	35.7	136	29.5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 2)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특성

트리트먼트 사용횟수를 보면 주 1회가 31.7%, 2-3일에 한번이 23.1%, 4-5일 한번이 23.7%로 나타났고, 매일은 21.5%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29.3%로 높게 나타났다.

사용 방법은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수분 후에 행굼이 28.3%로, 두피모발 전체 바른 후, 수분 후에 행굼이 25.8%, 두피모발 전체 바른 후, 바로 행굼이 23.7%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두피모발 전체 바른 후, 바로 행굼이 29.7%로 나타났으며 불량한 경우에는 15.2%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량한 경우는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바로 행굼다는 의견이 2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

이러한 결과는 트리트먼트 사용 방법에 있어서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두피 모발에 전체 바른 후, 바로 행굼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불량한 경우에는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바로 행굼다는 의견이 2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4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사용특성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트리트먼트 사용횟수</b>									
매일	18	16.2	23	20.0	29	29.3	70	21.5	4.32 (.632)
2-3일에 한번	27	24.3	32	27.8	16	16.2	75	23.1	
4-5일에 한번	32	28.8	25	21.7	20	20.2	77	23.7	
주 1회	35	30.6	35	30.4	34	34.3	103	31.7	
<b>트리트먼트 사용 방법</b>									
두피모발 전체 바른 후, 바로 헹굼	33	29.7	29	25.2	15	15.2	77	23.7	11.79 * (.019)
두피모발 전체 바른 후, 수분 후에 헹굼	27	24.3	32	27.8	25	25.3	84	25.8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바로 헹굼	15	13.5	29	25.2	28	28.3	72	22.2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수분 후에 헹굼	36	32.4	25	21.7	31	31.3	92	28.3	
합계	111	100.0	115	100.0	99	100.0	325	100.0	

\*p<.05

## 10.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구입

### 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

모발 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을 보면 광고가 4.0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품질, 모발타입, 두피타입, 향/색감, 가격, 브랜드, 주위평가, 용량, 샘플 사용 후, 미용실권유, 사은품, 용기디자인의 순이었다.

모발화장품 구입 시 두피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체 3.88점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두피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3.54점으로 양호한 경우 3.97점, 보통인 경우 3.86점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이는 두피상태가 나쁜 경우에 두피 화장품을 선택할 때 본인의 두피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발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88점으로 나타났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92점, 불량한 경우 3.66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두피상태가 양호할수록 모발화장품 구입 시 본인의 모발 타입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의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04점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3.2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3.08점, 불량이 2.84점 순으로 나타났다( $p < .01$ ). 조사자들의 두피 및 모발상태가 좋을수록 모발화장품선택에 제품효과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과 색감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66점이었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3.8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호한 경우는 3.61점으로 불량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p < .05$ ). 이와 같은 결과는 두피상태가 나쁜 경우에 화장품 구입 시 향과 색감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 표 15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F(p)
	양호 (n=153)	보통 (n=154)	불량 (n=154)		
가격	3.76± <sup>1)</sup> .99	3.58± .95	3.52± 1.08	3.62± 1.01	2.30 (.101)
브랜드	3.56± .98	3.55± 1.05	3.42± 1.03	3.51± 1.02	.94 (.391)
두피타입	3.97± .92	3.86± .98	3.54± 1.07	3.79± 1.01	7.94*** (.000)
모발타입	4.06± .95	3.92± .97	3.66± 1.06	3.88± 1.01	6.45** (.002)
품질	4.03± .95	3.90± 1.07	3.92± 1.03	3.95± 1.02	.78 (.458)
광고	4.18± .89	4.08± .98	4.00± 1.05	4.08± .98	1.25 (.285)
효과	3.20± .91	3.08± 1.00	2.84± 1.01	3.04± .98	5.24** (.006)
용기디자인	2.67± .90	2.55± .89	2.53± 1.07	2.58± .96	1.04 (.352)
용량	3.28± 1.07	3.16± .98	3.25± 1.05	3.23± 1.03	.62 (.538)
향/색감	3.61± 1.11	3.55± .95	3.82± .98	3.66± 1.02	2.99* (.05)
주위평가	3.49± 1.06	3.34± .99	3.53± 1.09	3.45± 1.05	1.40 (.247)

샘플 사용 후	3.26± 1.12	3.06± 1.09	3.16± 1.23	3.16± 1.15	1.20 (.300)
사은품	2.90± 1.07	2.75± .99	2.77± 1.13	2.80± 1.06	.84 (.430)
미용실권유	2.97± 1.11	2.92± 1.08	2.79± 1.19	2.89± 1.13	1.08 (.340)

---

\*p<.05 \*\*p<.01 \*\*\*<p.001

---

1) 평균 ± 표준편차

## 2)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

구매 장소를 보면 슈퍼 및 마트가 43.8%, 인터넷 및 홈쇼핑이 18.9%, 약국 15% 순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슈퍼 및 마트라는 응답이 48.4%로 불량한 경우의 4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한 경우에는 미용실이나 약국이 각각 15%정도로 나타나 양호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매빈도는 3개월에 한번이 33.6%, 2개월에 한번 29.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에 한번은 16.3%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6개월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1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불량한 경우 3개월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3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구매비용은 2만원-3만원 미만 32.3%, 1만원-2만원 미만 30.6%, 1만원 미만 16.5%, 3만원-4만원 미만 10.8%, 4만원-5만원 미만 5.9%, 6만원 이상이 3.9%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1만원-2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3.3%로 보통과 불량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인 경우에 2만원-3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1%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량한 경우에는 3만원-4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6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chi^2(p)$
	양호		보통		불량		n	%	
	n	%	n	%	n	%			
<b>구매 장소</b>									
백화점	12	7.8	7	4.5	3	1.9	22	4.8	16.950 (.151)
슈퍼 및 마트	74	48.4	66	42.9	62	40.3	202	43.8	
인터넷 및 홈쇼핑	25	16.3	29	18.8	33	21.4	87	18.9	
미용실	15	9.8	14	9.1	24	15.6	53	11.5	
약국	17	11.1	28	18.2	24	15.6	69	15.0	
기타	10	6.5	10	6.5	8	5.2	28	6.1	
<b>구매빈도</b>									
1개월에 한번	12	7.8	15	9.7	11	7.1	38	8.2	3.765 (.878)
2개월에 한번	44	28.8	44	28.6	46	29.9	134	29.1	
3개월에 한번	50	32.7	47	30.5	58	37.7	155	33.6	
6개월에 한번	28	18.3	24	15.6	23	14.9	75	16.3	
기타	19	12.4	24	15.6	16	10.4	59	12.8	
<b>월 구매비용</b>									
1만원 미만	30	19.6	28	18.2	18	11.7	76	16.5	13.466 (.199)
1만원 - 2만원 미만	51	33.3	44	28.6	46	29.9	141	30.6	
2만원 - 3만원 미만	44	28.8	54	35.1	51	33.1	149	32.3	
3만원 - 4만원 미만	12	7.8	14	9.1	24	15.6	50	10.8	
4만원 - 5만원 미만	9	5.9	11	7.1	7	4.5	27	5.9	
6만 원 이상	7	4.6	3	1.9	8	5.2	18	3.9	
합계	153	100.0	154	100.0	154	100.0	461	100.0	
				0		0		0	

## 11.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 화장품 사용횟수

두피 및 모발제품 사용횟수를 보면 샴푸가 4.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린스/컨디셔너가 3.87점, 에센스/세럼이 2.84점, 트리트먼트가 2.68점, 헤어로션이 1.64점, 스프레이가 1.52점, 왁스가 1.46점, 모발용 앰플이 1.40점, 두피용 앰플이 1.37점, 클레이즈가 1.29점, 젤이 1.23점, 무스 1.14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샴푸와 린스/컨디셔너, 에센스/세럼,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횟수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낸다. 샴푸를 사용하는 횟수가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4.81점으로 불량한 경우와 비슷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린스/컨디셔너를 사용하는 횟수는 전체 3.87점으로 나타났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와 불량한 경우 모두 3.74점으로 똑같이 나타났으며, 보통인 경우에는 4.12점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에센스/세럼을 사용하는 정도는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두피용 앰플을 사용하는 정도는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경우와 불량한 경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보통의 경우가 약간 더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헤어로션을 사용하는 횟수는 전체 1.65점으로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1.81점, 보통인 경우 1.69점, 양호한 경우 1.41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이 차이는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할수록 헤어로션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7 >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사용횟수

구분	두피 및 모발상태			전체	F(p)
	양호 (n=153)	보통 (n=154)	불량 (n=154)		
샴푸	4.81± <sup>1)</sup> .94	4.77± .47	4.86± .37	4.81± .41	1.86 (.156)
린스/컨디셔너	3.74± 1.50	4.12± 1.27	3.74± 1.56	3.87± 1.45	3.62* (.027)
트리트먼트	2.51± 1.52	2.81± 1.41	2.71± 1.44	2.68± 1.46	1.73 (.177)
에센스/세럼	2.93± 1.73	2.88± 1.74	2.71± 1.66	2.84± 1.71	.740 (.477)
두피용 앰플	1.31± .81	1.48± .94	1.33± .77	1.37± .84	1.88 (.153)
모발용 앰플	1.36± .87	1.44± .97	1.40± .85	1.40± .90	.334 (.716)
헤어로션	1.41± 1.03	1.69± 1.28	1.81± 1.38	1.64± 1.25	4.16* (.016)
클레이즈	1.24± .83	1.37± 1.08	1.25± .82	1.29± .92	.947 (.389)
젤	1.24± .77	1.22± .72	1.25± .87	1.23± .79	.042 (.958)
무스	1.13± .51	1.16± .67	1.14± .59	1.14± .59	.707 (.933)
왁스	1.43± .99	1.35± .99	1.60± 1.25	1.46± 1.09	2.070 (.127)
스프레이	1.49± 1.06	1.47± 1.12	1.58± 1.24	1.52± 1.14	.41 (.664)

\*p<.05

1) 평균 ± 표준편차

## V. 고 찰

시각적인 효과를 갖는 헤어스타일 측면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미용분야에서 두피관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야임에 불구하고 타 분야보다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건강적인 측면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이러한 현상은 모발의 손상과 건강하지 못한 두피를 갖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건강한 모발을 갖기 위한 대책까지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평상시 두피 및 모발 관리습관과 모발화장품 구매행동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평소의 두피 및 모발관리 습관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습관 통해 두피·모발 관리 산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젊은 여성의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는 평점에 따라 각각 33%에 해당하는 양호 그룹 153명, 보통그룹 154명, 불량그룹 154명 세 그룹으로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 중 김효진(2011)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모발의 손상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은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잦은 헤어스타일 연출로 손상이 되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는 20대가 많았으며, 이것은 예전보다 헤어스타일 연출 후에 두피 및 모발관리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추

측할 수 있다.

두피타입은 정상두피(40.1%)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 연구와 같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장지연(2011), 이상미(2008)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젊은 층인 연구 대상자는 보통 두피를 정상두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 정상두피가 많았고, 불량한 그룹에서는 지성, 건성, 비듬성의 두피타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오정선(2010) 연구에서와 같이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 두피타입을 대부분 정상두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의 미용실 월 이용비용은 3만 원 이상 - 5만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한 그룹에서는 1만원 미만과 7만 원 이상이 높게 나타나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선행논문 석유나(2010) 연구에서와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미용실 월 이용비용은 시술종류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라 비용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선행연구 중 이방실(2009)연구에서 20~30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사용하는 샴푸제품종류에서는 연구대상자 36%가 일반샴푸를 사용하고 두피 전용샴푸를 11%만이 사용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이상미(2008)연구에서도 대상자중 61%가 일반샴푸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연구 대상자 중 일반샴푸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62.3%로 가장 많은 결과와 동일하였다. 반면 진정애(2008)연구에서는 손상모 전용 샴푸가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연구대상자를 미용관련학과를 대상으로 전문적 미용지

식을 갖고 있어 적절한 샴푸를 선택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샴푸 사용 대상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샴푸를 사용하였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샴푸·린스 겸용샴푸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변화정(2010)연구에서 두피 및 모발 건강상태가 평균 이상 집단이 평균이하집단보다 일반샴푸 사용이 더 많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사한 그룹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 중 박연아(2011)연구에서 모발화장품 구입 시 20세 이상 젊은 여성들은 제품이 가진 기능적 요인에 큰 가치를 두며, 문영심(2010)연구에서도 젊을수록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를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기능성을 고려한다고 나타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모발화장품 구입 시 두피 및 모발상태를 고려하고 제품의 효과를 고려하여 구입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세 그룹 중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도 불량한 그룹보다 제품 구입 시 두피와 모발 상태, 제품효과를 고려하며, 반면 향이나 색감을 고려한다는 결과는 불량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두피 및 모발에 사용하는 샴푸제 또한 피부에 바르는 한 화장품의 하나로 향기가 제품구매 시 부가적인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피 및 모발의 건강상태는 모발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증명 할 수 있는 결과이다.

## V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젊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정기간 설문지를 배포하여 48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충분하게 기재된 응답지 19부를 제외한 461명을 대상으로 두피 및 모발의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 관리습관과 모발화장품 구입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25세 이하가 가장 높았고,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25세 이하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으며, 보통인 그룹과 불량한 그룹에서는 31-35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사무직/전문직이 많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흡연, 음주, 수면시간, 운동,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세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타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상이 가장 많았고, 양호한 그룹에서도 정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

는 두피타입이 정상타입두피보다는 지성, 민감성, 복합성이 많아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모발의 형태를 보면 곱슬인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은 직모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곱슬인 편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헤어스타일의 경우 염색모발이 가장 높았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웨이브 파머가 두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자연모발은 불량한 그룹의 응답으로 가장 많아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모발의 길이를 보면 모발의 길이가 중간이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많았으며, 짧다, 길다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모발의 길이가 아주 짧다는 응답이 보통이거나 불량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모발의 길이가 길다는 응답이 많아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미용실 이용현황에서 미용실 및 이용원의 월 이용비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1만원~3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도 1만원 ~ 3만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불량한 그룹은 7만원 이상과 1만원 미만이 많았다( $p < .05$ ). 반면 미용실 방문여부, 미용실 방문비도, 미용실 및 이용원 시술종류에서는 두피 및 모발상태 양호, 보통, 불량한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샴푸 사용특성에서 사용하는 샴푸제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샴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도 일반샴푸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샴푸나 린스 겸용이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샴푸 후 물 행굼 정도의 경우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보통인 그룹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양호그룹보다 적어 그룹간의 차이를 보였다( $p < .05$ ). 반면에 샴푸시기, 샴푸횟수, 물의 온도, 샴푸 방법에서는 세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린스 사용특성에서 린스사용 방법을 보면 모발 중간에서 모발 끝까지 사용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과 불량한 그룹이 두피와 모발을 전체 사용한다는 응답에서 차이를 보였다( $p < .05$ ).

린스사용 여부의 경우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린스사용횟수가 적음을 보였고, 보통이거나 불량인 그룹은 린스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호한 그룹과의 차이는 없었다.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트리트먼트 특성에서 트리트먼트 사용방법을 보면,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두피와 모발 전체에 바른 후, 바로 행굼이 가장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에서는 트리트먼트

를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바로 행군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p < .05$ ).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모발화장품 구입특성에서 구입 시 고려사항을 보면 상대적으로 광고가 높게 나왔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그룹인 경우 두피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이것은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한 집단이 모발화장품 구입 시 두피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집단에서는 모발타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불량한 그룹과 양호한 그룹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이 결과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이 모발화장품 구입 시 모발타입을 더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두피 및 모발 상태가 양호한 그룹이 보통, 불량한 그룹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p < .01$ ). 이것은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할수록 모발화장품 구입 시 제품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발 화장품 구입 시 향과 색감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66점이며, 두피 및 모발 상태가 불량한 그룹이 3.82점으로 양호한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p < .05$ ).이것은 두피 및 모발상태가 불량할수록 모발 화장품 구입 시 향과 색감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음을 나타낸다.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제품 사용횟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샴푸가 4.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린스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횟수와 헤어로션을 사용하는 횟수에서 두피 및 모발상태의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본 연구를 통해 젊은 여성의 두피 및 모발관리 습관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두피 및 모발상태가 양호한 그룹이 불량한 그룹보다 두피 및 모발관리 상태를 잘 인식하여 관리와 모발화장품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잘못된 관리습관을 재인식하며 변화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두피 및 모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관리법을 제공하여 두피 및 모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두피 및 모발관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모발 및 두피관리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관리습관과 모발화장품 구입태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며, 두피 및 모발에 대한 올바른 관리습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 가지고 있다.

첫째,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 논문은 종종 찾아 볼 수 있지만,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눈 후 생활습관과 두피 및 모발 관리습관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고찰작성에 한계가 있었으며, 측정수준이 연구마다 달라 다른 연구와의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서울, 경기 일부지역의 461명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과 지역을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두피 및 모발에 대한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표본을 확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문항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으나, 자가 진단을 하는 항목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집중 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계

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헤어시장의 확대화가 예상되고, 헤어에 관심을 갖는 젊은 여성이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련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두피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곽형심, 김순희, 전선정, Art of wave, 서울 : 청구문화사, p.35, 2000
2. 곽형심, 최현숙, 김순희, 전성정, 김세욱, 김태훈, 전효은, 모발·두피관리학, 서울 : 청구문화사, p.105 2002
3. 권용선, 여대생들의 생활습관이 두피·모발상태에 미치는 영향 - 미용전공·일반전공 집단 간 차이점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 국제미용교육포럼학술위원회, 모발학, 서울 : 청구문화사, p.73 2004
5. 김경순, 류은주, 조성태, 최영희, 황희순, 모발관리학, 서울 : 청구문화사, p.50, 2000
6. 김명우, 전업주부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관리 인식 및 행동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p.5-12, 2007
7. 김민정, 배선향, 이부형, 유유정, 정지영, 최근희, 모발 및 두피관리, 서울 : 도서출판 예림, p.45-83, 2005
8. 김송희, 오순숙, 미용전공 여대생과 비전공 여대생의 샴푸 습관과 두피관리 실태 및 인식, 한국미용예술학회지, p.25-34, 2010
9. 김현, 현대미용학, 서울 : ACP, p.54, 1998
10. 김효진, 모발손상의 원인과 모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1. 대한미용교수협의회, TRICHOLOGY Scalp & Hair Care, 서울 : 청구문

화사, p.118, 2007

12. 류은주, 모발학, 서울 : 광문각, p.301, 2002
13. 문영란, 직장인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4. 문영심, 여성의 두피와 모발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 박연아, 두피·모발 특성 및 헤어제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6. 변화정, 여대생의 두피·모발상태와 관련된 요인 분석,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 석유나, 미용실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8. 송현화, 청소년의 헤어제품 구매행동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9.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화장품 생산 및 수입실적 분석 보고서, 2011
20. 아시아경제, '샴푸 온라인 구매하는 소비자 급상승', 2013. 4. 20
21. 아시아경제, '엘라스틴 샴푸 7년째 1위', 2011. 3. 16
22. 안홍석, 홍란희, 김명숙, 김문주, 최성임, 강신옥, 미용건강학, 파워북 : 서울, p.135, 2007
23. 오강수, 두피 및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패션뷰티학회, p.34-50, 2007
24. 오정선, 여대생들의 두피·모발에 대한 인식 및 모발관리형태, 한국인체

- 미용예술학회지, p.131-142, 2011
25. 이경란,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연구 - 강원, 충북지역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6. 이방실, 두피·모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7. 이상미, 두피 및 모발에 따른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의 차이, 한국미용예술학회지, p.195-206, 2007
  28. 이연복, 이경복, 한국인의 미용풍속, 서울 : 월간 에세이, p.183-188, 2000
  29. 이영재, 구매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모발화장품 관여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0. 이원경, 박종순, 헤어케어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 권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p.45-58, 2002
  31. 이원경, 선진 모발 관리샵의 경영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두피 및 모발 관리샵 운영을 위한 연구, 수원여대논문집, p.131, 2001
  32. 이원경, 모발미용학, 청구문화사, p.369-370, 1999
  33. 이진희, Scalp & Hair Treatment와 Alopecia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1
  34. 임은진, 김은주, 김은희, 송대해, 하성이, 두피·모발관리학, 메디시언, p.35-122, 2011
  35. 임이화, 모발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과 사용실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6. 장지연, 전남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두피·모발관리 인식 및 태도에 관한

-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7. 전미영, 대전·충청지역 청소년의 두피 인식 및 샴푸 행태에 관한 연구, 하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8. 정의성, 두피 및 모발관리의 필요성과 인식에 관한 조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9. 조성일, 최주미, 두피 & 탈모관리학, 서울 : 리그라인, p.171, 2006
40. 전정애,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1. 파이낸셜뉴스, ‘모발도 피부 헤어케어제품 판매량 눈에 띄네’, 2013, 4, 10
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1
43. 해피캠퍼스, 국내샴푸시장 마케팅전략 및 분석, 국내 샴푸 시장현황, 2012
44. 화장품신문, 2005.8.16
45. Healing hair care insitute, Hair care art, 현문사, p.42-47, 2002

# **ABSTRACT**

**The Care Habits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and the  
Use Realities of Hair Cosmetics  
- Targeting Young Women in Their 20s~30s -**

**choi, jin-seon**

**Major in Skin Care and Obesit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of life style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and of hair cosmetics purchase characteristics in women in their 20~30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The aim is to offer basic data necessary for developing effective and systematic scalp & hair care program in consideration of problems, simultaneously with maintaining and promoting health through right care

method of hair.

Data analysis was made by using SPSS WIN 20.0 program. To examine survey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analysis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compare groups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it conducted one-way ANOVA, which is the mean-difference verification,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hich is the group-based difference verification. It was divided into high, middle, and low groups according to self-diagnosis mark. Three groups were composed of 153~154 people per group corresponding to 33%, respectively.

Accordingly,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seeing survey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the highest in under 25 years old with 43.6%.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it accounted for 53.6% in under 25 years old, thereby having been the high ratio compared to other two groups. In a moderate group and a bad group, it was relatively high in 31-35 years old. Thu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 ).

Second, seeing scalp type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normality was the largest with 40.1% as a whole. In a good group, a case with response as saying of being normal accounted for 51.6%. In a bad group,

a scalp type was higher with 14.3% in oily, 13.6% in sensitive, and 24.7% in complex than the scalp in normal type. Thus, the group-based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p<.001$ ).

In case of hair style, the dyed hair was the highest with 29.9%.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the wave permanent accounted for 32.7%, thereby having been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wo groups. Natural hair accounted for 30.5%, which was the largest in the response of a bad group. Thus, the group-b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p<.001$ ).

Seeing length of hair, the response as saying that the hair length is moderate was high with 40.3% as a whole.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the response as saying that the length of hair is very short accounted for 11.1%, thereby having been relatively higher than moderate or bad group. In a bad group, the response as saying that the length of hair is long was large with 27.3%( $p<.01$ ).

Third, seeing the monthly cost of using beauty salon and beauty shop in the present condition of using beauty salon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it was the largest in 10,000 won~ 30,000 won with 36.5% as a whole. Even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it was relatively high in 10,000 won~ 30,000 won with 40.6%. A bad group was large( $p<.05$ ) in over 70,000 won~under 10,000 won.

Fourth, seeing shampoo product of being used in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shampoo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the response as saying of using general shampoo was large with 62.3% as a whole. Even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the use of general shampoo was the largest with 76.5%. In a bad group, the combination of shampoo or rinse accounted for 20.1%. The higher ratio was shown than other two groups. Thus, the group-b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p < .001$ ).

In case of water rinsing following shampoo, 84.9%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responded yes. In a moderate group, about 77% responded. Thus, the group-based difference was shown( $p < .05$ ).

Fifth, seeing a method of using rinse in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rinse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the response as saying of using from the middle of hair to the tip of hair was the largest with 51.9%.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the response as saying of using it in the whole of scalp and hair accounted for 25.7%, thereby having shown difference from the response as saying of using it in the whole of scalp and hair with 10.7% in a bad group( $p < .05$ ).

Sixthly, seeing how to use in the treatm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the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was the largest with 29.5% in rinsing right after applying treatment to the whole of scalp and hair. In a bad group, the opinion as saying of rinsing right after applying treatment to the middle of hair to the tip accounted for

29.3%, thereby having been relatively high. Thus, the difference was shown between two groups( $p < .05$ ).

Seventhly, seeing the considerations given buying in the characteristics of purchasing hair cosmetics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the advertisement appeared to be relatively high. In a group with bad scalp & hair status, the response as saying of considering scalp type was indicated( $p < .001$ ) to be high compared to other two groups.

In a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the response as saying of considering hair type was large with 4.06 poin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p < .01$ ) between bad group and good group.

The response as saying of considering effect was indicated to be 3.04 points of the whole. The group with good scalp & hair status stood at 3.20 points, thereby having been relatively larger than a case of moderate and bad groups.

The response as saying of considering perfume and color sense given buying hair cosmetics stood at 3.66 points of the whole. The group with bad scalp & hair status stood at 3.82 points, thereby having been relatively larger than a good group( $p < .05$ ).

Eighthly, seeing the frequency of using scalp and hair products according to scalp & hair status, shampoo stood at 4.81 points as a

whole,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most high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 in a group with scalp & hair status between frequency of using rinse conditioner and frequency of using hair lotion.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which influences the scalp & hair status, the significance was verified in how to use hair cosmetics and in considerations given buying hair cosmetics. Thus, these thing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tendency of having influence upon young women's scalp & hair status.

Based on the findings, it is considered to be likely able to be basic data for managing scalp and hair effectively in addition to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scalp & hair care by allowing young women to recognize importance of scalp & hair care and offering right habit and care method.

< 부 록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두피 및 모발상태에 따른 헤어관리 생활습관과 헤어제품의 구매사용방법 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기위해 만들어진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제시된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생활습관과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성실하게 응답해주신다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의 수집된 자료는 순수하게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사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질문 하나하나가 본 연구와 중요한 관련이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피부비만관리 석사과정  
지도교수 : 안 홍 석  
연구자 : 최 진 선

< 일반적 사항 >

1. 귀하의 연령을? \_\_\_\_\_세

2. 귀하의 키와 몸무게 \_\_\_\_\_cm / \_\_\_\_\_kg

3. 귀하의 결혼여부는?

(1) 미혼 (2) 기혼 (3)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1) 학생 (2) 주부 (3) 사무직/전문직 (4) 판매직 (5) 생산/ 기술직 (6) 기타

5.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6. 귀하의 음주횟수는?

(1) 1주일 1회 (2) 1주일 2-3회 (3) 2주일 1회 (4) 3주일 1회

(5) 4주일 1회 (6) 마시지 않는다. (7) 기타

7. 귀하의 수면 시간은?

(1) 5시간 미만 (2) 5-6시간 (3) 6-7시간 (4) 7-8시간 (5) 8시간 이상

8. 귀하의 운동습관은?

(1) 운동을 안한다 (2) 주 1회 정도 (3) 주 3-4회 정도 (4) 주 5-6회 정도 (5) 매일

9. 귀하의 스트레스 유무는?

- (1) 거의 없다 (2) 가끔 있다 (3) 보통이다 (4) 자주 있다 (5) 매일 있다

### < 두피 및 모발 특성 >

#### 두피 및 모발 상태

10. 귀하의 두피 타입은?

- (1) 정 상  
(2) 지 성 : 머리를 감은지 3-4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름이 끼고 냄새남.  
(3) 건 성 : 2일쯤 머리를 감지 않아도 기름이 끼지 않고 머리를 감은 후 상태 계속 유지.  
(4) 민감성 : 두피에 여드름 또는 뾰루지가 생기거나 긁으면 아프고, 자주부음.  
(5) 비듬성  
    건성비듬 : 가려우며 하얀 가루처럼 날리거나 머릿결을 타고 떨어짐.  
    지성비듬 : 머리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기름기나 느껴지며, 긁으면 노란 것이 묻어남.  
(6) 복합성 : 두피에는 기름이 끼는데 모발은 건조함  
    (두피는 지성, 모발은 건성)  
(7) 기타

11. 귀하의 모발 형태는?

- (1) 직모 (2) 직모인편 (3) 곱슬인편 (4) 심한곱슬 (5) 기타

12. 귀하의 모발 길이는?

- (1) 아주짧다 (2) 짧다 (3) 중간 (4) 길다 (5) 아주길다

13. 귀하의 헤어스타일은?

(1) 웨이브 퍼머 (2) 스트레이트 퍼머 (3) 염색모발 (4) 자연모발 (5) 기타

귀하의 두피 및 모발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14.	나의 두피는 상처가 있다					
15.	나의 두피는 쉽게 자극을 느낀다					
16.	나의 두피는 탈모가 심하다					
17.	나의 두피는 가려움이 심하다					
18.	나의 두피는 비듬이 많다					
19.	나의 두피는 홍반 및 염증이 있다					
20.	나의 두피는 피지가 많다					
21.	나의 모발은 탄력이 없다					
22.	나의 모발은 얇다					
23.	나의 모발 술은 적다					
24.	나는 백모가 많다					
25.	나의 모발은 윤기가 없다					
26.	나의 모발은 손상되었다					
27.	나의 모발은 끊어짐이 있다					

< 미용실을 이용한 두피모발관리 >

28. 귀하는 미용실 및 이용원을 이용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 28번 문항에서 '(1)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28 - 1. 귀하께서 미용실 또는 이용원에 방문하는 횟수는?

- (1) 1년에 1회 (2) 6개월에 1회 (3) 2-3달에 1회 (4) 한달에 1회  
(5) 15일에 1회 (6) 일주일에 1회 (7)기타

28 - 2. 귀하께서 미용실 또는 이용원에서 시술받는 것은?

- (1) 커트 (2) 염색 (3) 퍼머 (4) 코팅 또는 헤어 매니큐어 (5) 헤어트리트먼트

28 - 3. 귀하가 한 달 동안 미용실 또는 이용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 (1) 1만원 미만 (2)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3) 3만원 이상 - 5만원미만  
(4) 5만원 이상 - 7만원미만 (5) 7만원 이상 (6) 기타

< 두피 및 모발 관리 습관 특성 >

샴푸 사용특성

29.귀하께서 주로 사용하는 샴푸 제품은 어떤 종류 입니까?

- (1) 비누 (2) 일반샴푸 (3) 천연샴푸 (4) 비듬방지샴푸 (5) 샴푸 린스 겸용샴푸  
(6) 탈모방지샴푸 (7)기타

30. 귀하께서는 하루 중 언제 샴푸를 하십니까?

(1)오전 (2) 오후 (3) 취침 전 (4) 아침과 저녁 각 한번씩(2번) (5)기타

31. 귀하께서 하루에 사용하는 샴푸 횟수는?

(1) 하루 1회 (2) 하루 2회 이상 (3) 주 2-3회 (4) 주 4-5회 (5) 주 1회 이하

32. 귀하의 샴푸 시 물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하여 사용하십니까?

(1) 차갑게 (2) 미지근하게 (3) 따뜻하게 (4) 뜨겁게 (5) 매우 뜨겁게

33. 귀하는 샴푸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십니까?

- (1) 두피를 손톱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낸다.
- (2) 두피를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마사지 하듯이 문지른다.
- (3) 두피는 문지르지 않고 모발을 집중적으로 문지른다.
- (4)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34. 귀하께서는 샴푸 사용 후 물로 충분히 헹구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35. 귀하는 샴푸를 사용할 때 두피와 모발상태 고려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 헤어 드라이기 사용특성

36. 귀하께서는 샴푸 후 모발 건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 (1) 자연건조 (2) 온풍 드라이 (3) 냉풍 드라이 (4) 선풍기 (5) 타월

(6) 건조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 (7) 기타

37. 귀하는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합니까?

(1) 예 (2) 아니오

38. 귀하는 헤어드라이기를 며칠에 한번 사용하십니까?

(1) 매일사용 (2) 주 2-3회 사용 (3) 주 4-5회 사용 (4) 기타

39. 귀하의 헤어드라이기 사용시간은?

(1) 5분미만 (2) 5분-10분미만 (3) 10분-20분미만 (4) 20분-30 이상 (5) 기타

#### 린스 사용특성

40. 귀하께서는 샴푸 후 린스 및 컨디셔너를 사용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41. 귀하는 린스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1) 샴푸 시 마다 (2) 2-3일에 한번 (3) 주 1회 (4) 기타

42. 귀하는 린스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 두피와 모발 전체에 바른다

(2) 모발중간부터 모발끝까지 바른다

(3) 모발 전체에 바른다

(4) 기타

### 트리트먼트 사용특성

43. 귀하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트리트먼트를 사용합니까?

(1) 예 (2) 아니오

44. 귀하는 트리트먼트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1) 매일 (2) 2-3일에 한번 (3) 주 1회 (4) 기타

45. 귀하는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 두피 모발 전체에 바른 후, 바로 행군다.

(2) 두피 모발 전체에 바른 후, 수분 후에 행군다.

(3) 모발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바로 행군다.

(4) 모발중간부터 끝까지 바른 후, 수분 후에 행군다.

<다음장에 이어집니다>

<모발화장품 구입 및 사용실태>

46. 모발화장품 구입 시 고려사항

항목	매우 고려한다	조금 고려한다	보통이다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가격					
브랜드					
두피타입					
모발타입					
품질					
효과					
광고					
용기디자인					
용량					
향/색감					
주위평가					
샘플 사용후 사은품					
미용실권유					

47. 귀하께서 모발 스타일링 제를 주로 구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백화점 (2) 슈퍼 및 마트 (3) 화장품 전문점 (4) 인터넷 또는 홈쇼핑  
(5) 미용실 (6) 약국 (7) 기타

48. 보통 귀하는 제품을 얼마 만에 한번 씩 구매 하는 편입니까?  
 (1) 1개월에 한번 (2) 2개월에 한번 (3) 3개월에 한번 (4) 6개월에 한번  
 (5) 기타

49. 귀하께서 제품 구매를 위해 월평균 얼마정도 지출하십니까?  
 (1) 1만원 미만 (2) 1-2만원 미만 (3) 2-3만원 미만 (4) 3-4만원 미만  
 (5) 4-5만원 미만 (6) 6만원 이상

50. 두피 및 모발 화장품 가지고 있는 제품의 사용횟수

종류	매일	이틀에 1회	일주일 1회정도	1개월에 1회정도	거의사용하 지 않는다
샴푸					
린스/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에센스/세럼					
두피용앰플					
모발용앰플					
헤어로션					
클레이즈					
젤					
무스					
왁스					
스프레이					

감사합니다.